



■ 「사교육로컬토크 전국순회투어」 예고보도(2019. 6. 5.)

부당한 사교육 현장 이야기를 들으러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찾아갑니다

-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사교육 소비자 권익보호운동의 일환으로 사교육 소비자들이 현장에서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던 비교육적·불법적 사례들을 톡 터놓고 말할 수 있는 ‘사교육 로컬토크(이하 로컬토크)’를 개최하고자 함.
- ▲ 6월 13일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사교육이 밀집된 9곳을 찾아가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 지역 시민들을 직접 찾아가 만나는 전국을 순회할 예정임.

- 강남: 6/13(목) 17:30 ~ 19:00 역삼청소년수련관 (서울시 강남구 역삼2동 776-8 4층 희망꽃교실)
- 분당: 6/17(월) 17:30 ~ 19:00 한국정책재단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32 금호행복시장 B1 55호)
- 목동: 6/19(수) 17:30 ~ 19:00 무중력시대 양천(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404-1 / 오목교역 4번출구)
- 노원: 6/25(화) 17:30 ~ 19:00 북부종합사회복지관(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1257 2층 강당)
- 평촌: 6/27(목) 17:00 ~ 18:30 범계큐브 (경기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039 롯데백화점 지하 / 범계역 4번출구)
- 대전: 7/23(화) 11:30 ~ 13:00 장소 추후 공지
- 광주: 7/23(화) 17:30 ~ 19:00 장소 추후 공지
- 부산: 7/24(수) 11:30 ~ 13:00 장소 추후 공지
- 대구: 7/24(수) 17:30 ~ 19:00 장소 추후 공지

- ▲ 사교육 상품의 직접적 소비자인 초·중·고 학생들을 중심으로 사교육 현장에서 체감한 현실적 문제를 집중적으로 들어보고, 사교육 현장에서 흔히 경험하는 부당 사례들에 대한 소비자들의 정당한 대응 방안에 대해 안내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임.
- ▲ 이 자리에서는 사교육 현장의 ‘신체·언어폭력, 개인정보 유출, 불법교습·운영’처럼 명백한 불법 행위뿐 아니라, 아이들의 건강한 발달과 성장을 방해하는 ‘인권침해·명예훼손, 학벌주의·과도한 경쟁 및 선행학습 조장’ 등의 비교육적 행위까지 폭넓게 다뤄질 것임.
- ▲ 이를 계기로 아이들의 일상적 학습 현장인 사교육 시장에서 벌어지는 잘못된 실상을 소비자들에게 낱알이 알립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사교육 업체(업자)들이 암암리에 행해온 부당한 관행을 제재하는 경종을 울리게 될 것임.

▲ 사교육 현장을 직접 경험해본 초·중·고 학생뿐 아니라, 자녀의 일상적 사교육 현장이 궁금한 학부모, 지역의 건강한 학원문화 형성에 관심이 있는 지역 시민분들의 많은 참여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사교육 소비자 권익보호운동의 일환으로 사교육 소비자들이 현장에서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던 비교육적·불법적 사례들을 톡 터놓고 말할 수 있는 ‘**사교육 로컬토크(이하 로컬토크)**’를 전국 9개의 사교육 밀집지역에서 개최합니다.

‘대치, 분당, 목동, 중계, 평촌...’ 전국적으로 이름난 학원가들로 사교육 업체들이 집중적으로 입지된 지역입니다. 이러한 사교육 환경은 이른바 ‘학세권’으로 불릴 만큼 학령기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거주지 선택과 집값 상승의 주요 변수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사교육 참여의 보편적 확산 속에 사교육 업체들은 이렇게 특정 지역들에 집중된 입지를 보이기에 사교육 현상은 지역성을 띠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지역별로 토착화된 사교육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고자 할 때, 해당 지역에서 사교육을 소비해본 당사자들의 경험은 매우 중요한 자료일 것입니다.

이에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초·중·고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체감한 부당한 사교육 사례들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러 ‘**강남·분당·목동·중계·평촌·대전·광주·부산·대구**’ 등 전국에 사교육 업체들이 밀집된 9개 지역들에 직접 찾아가고자 합니다. 지역 학원·공부방·학습지·인강·독서실 등의 사교육 상품을 직접 이용하며 겪었던 경험 또는 오고 가며 간접적으로 보고 들은 이야기 가운데, 아무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교육일지라도 명색이 교육 현장인데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싶었던 현실적 문제를 생생히 이야기하고 듣는 자리를 마련한 것입니다.

현장 진행은 먼저 △‘**사교육 대나무숲**’ 코너로 시작되며, 현장에 참여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자유로운 토크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여기서는 사교육 현장의 ‘신체·언어폭력, 개인정보 유출, 불법교습·운영’과 같은 <불법 행위>뿐 아니라, 아이들의 건강한 발달과 성장을 방해하는 ‘인권침해·명예훼손, 학벌주의·과경쟁조장, 과도한 선행학습 조장’과 같은 <비교육적 행위>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가감없는 이야기가 나뉘질 것입니다. 뒤이어 △‘**나쁜 사교육 대응 레시피**’ 코너에서는 사교육 전문가가 사교육 소비자들이 사교육에 참여하며 흔히 경험하는 부당 사례들을 소개하고, 소비자로서 정당한 대응 방안에 대해 안내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지난 1~3월 석달 간 교육부가 사교육 시장에 대한 합동점검 결과 불법 컨설팅 사례로 단 4건을 적발하는 데 그친 것과 같이, 그간 관계 당국은 사교육 시장의 문제에 대해 한시적인 업체 단속, 민원 처리 등의 ‘형식적·소극적 대응’에 머물러왔습니다. 금번 로컬투어는 이에 비해 소비자가 체감한 문제를 당사자로부터 보다 적극적이고 면밀히 파악함으로써 사교육 현장의 문제에 대한 ‘실질적·적극적 대응’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로컬토크를 계기로 사교육 시장에서 소비자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채 현장에서 업계 관행상 암암리에 자행되었던

불법·비교육적 행태들이 낱알이 알려질 것입니다. 나쁜 사교육 업체(업자)들이 학부모를 기만하고 학생들을 오도하는 일을 되풀이하지 못하도록 사회적 경종을 울릴 것입니다.

금번 사교육 로컬토크는 사교육 현장을 직접 경험해본 초·중·고 학생 및 자녀의 일상적 사교육 현장이 궁금한 학부모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의 건강한 학원문화 형성에 관심이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특히 지금까지 값비싼 사교육비를 지불하고도 정당한 대접을 받지 못했고, 문제를 삼으면 괜시리 더 피해를 볼까봐 적절한 대응을 망설이고 포기했던 사교육 시장의 소비자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유용한 정보가 넘치는 시간이 되리라 자신합니다.

특히 금번 행사는 초·중·고 학생들도 지역 사회 시민으로서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사회참여 활동입니다. 지역 사교육 현장에 대해 가장 잘 아는 학생들의 원활한 참여를 위해 수도권은 학기 중 방과후 시간에, 지방권은 방학 중에 실시하며, 캠페인 활동으로서 봉사활동 확인서 발급도 가능합니다. 90여분의 행사 이후에는 함께하는 식사 자리도 마련하였으며, 참석자 전원에게는 에코백 등 소정의 선물을 제공합니다. 소비자 주권의 취약지대였던 사교육 시장을 소비자 중심으로 재편하는 뜻깊은 일에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행사명 : <사교육 로컬토크_전국순회투어>

■ 일시&장소

- 강남: 6/13(목) 17:30 ~ 19:00 역삼청소년수련관 (서울시 강남구 역삼2동 776-8 4층 희망꽃교실)
- 분당: 6/17(월) 17:30 ~ 19:00 한국정책재단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32 금호행복시장 B1 55호)
- 목동: 6/19(수) 17:30 ~ 19:00 무중력지대 양천(서울시 양천구 목동 404-1 / 오목교역 4번출구)
- 노원: 6/25(화) 17:30 ~ 19:00 북부종합사회복지관(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1257 2층 강당)
- 평촌: 6/27(목) 17:00 ~ 18:30 범계큐브 (경기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039 롯데백화점 지하 / 범계역 4번출구)
- 대전: 7/23(화) 11:30 ~ 13:00 장소 추후 공지
- 광주: 7/23(화) 17:30 ~ 19:00 장소 추후 공지
- 부산: 7/24(수) 11:30 ~ 13:00 장소 추후 공지
- 대구: 7/24(수) 17:30 ~ 19:00 장소 추후 공지

■ 주요 순서

- '사교육 소비자 권익보호 운동' 소개
- 시민 릴레이 토크 '사교육 대나무숲'
- 사교육 전문가의 '나쁜 사교육 대응 레시피'
- 사진 촬영 및 식사

■ 참여 대상

- 초·중·고 학생 및 학부모는 물론이고, 관심있는 시민 누구나

■ 참석 신청 :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배너를 클릭해 신청해 주세요.

2019. 6. 05.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선임연구원 신소영(02-797-4044, 내선번호 510)

